

전남서 잇단 안전사고 '대책 시급'

최근 전남지역에서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잇따라 안전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광주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0분께 영광군 군남면 교량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김모(66)씨와 주모(66)씨가 철근더미에 매몰됐다.

이들은 매몰된 지 1시간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이들이 철근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던 중 무너진 철근더미에 깔린 것으로 보고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영광군은 군남면 도장리에서 불갑면 순용리로 연결되는 기존 교량이 노후돼 지난해 6월2일 건설사와 계약을 맺고 새로 77.5m 구간을 개축하는 중이었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2시41분께에는 영암군 삼호읍 한 레미콘회사 내 설비 중축 공사장에서 대표 김모(57)씨가 무너진 옹벽과 휴더미에 매몰됐다.

김씨는 같은 날 오후 3시50분께 소방당국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김씨가 옹벽 아래에 고인 물을 빼내는 작업을 점검하던 중 휴더미를 받치는 옹벽이 무너져 깔린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처럼 잇단 매몰 사고로 근로자들이 숨지면서 근본·종합적인 안전사고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복잡한 원·하청 구조, 안전 전담 인력 부족, 미흡한 안전 교육 체계, 허술한 장비 검사 기준, 불량·노후 장비 사용, 작업 미숙 등을 안전사고 배경으로 꼽는다.

한 근로감독관은 "대형 건설사인 원청업체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공사를 하면서 공정률과 이익만 쫓는다"며 "원청이 하청업체에 공사기간 내 완공을 강요하면, 작업자들이 시간에 쫓겨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잡한 원·하청 구조는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을 떠넘기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안전 관련 업무 또한 대형 건설사가 전담하는 사례도 드문 편이다"며 "최소한 안전 부문을 외주화하지 말고 (대형 건설사가)전담 인력을 양성·투입해야 한다. 상시적인 교육으로 공사장 관계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과 맞춤형 안전작업 가능 환경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준상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

복잡한 하도급 구조...감독 체계 미흡

안전시스템·불감증 총체적 개선 필요

남 건설지부(토목건축) 노동안전부장은 "고용 안정에 대한 불안으로 노동자 대다수가 열악·위험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도 상당히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 산업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노동당국은 미봉책만 내놓고 있고, 건설사 측은 하청업체 소장에게 산업재해 처리하지 않게 압박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중대재해가 아닌 일반 부상의 70%는 은폐된다고 볼 수 있다"며 "노동청 근로감독관 부족으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점도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배경"이라고 진단했다.

이을러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각계각층이 노력이 선행돼야 하고, 하청업체 안전 관리자들에게 책임만 줄 게 아니라 권한도 줘야 한다. 교육 훈련 강화, 건설현장의 활발한 소통 등으로 민관이 나서 안전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



운전은 맑은 공기에서 두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인근을 지나는 한 버스에서 기사가 마스크를 쓰고 신호 대기하고 있다.

경찰, 민주당 '당원명부 유출 의혹' 고발인 조사

오늘부터 광주시당 전·현직 관계자들 조사할 듯

광주 지역 더불어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선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1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남 이 사건 고발인인 민주당 권리당원 장모(44)·이모(57)·서모(44) 씨를 불러 고발 사실에 관한 기초 조사를 마쳤다. 이들은 지난 1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광주시장 출마예정자 A씨를 광주경찰청에 대리 고발했다.

경찰은 18일부터 민주당 광주시당 전·현직 관계자들을 불러 관련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이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고발인들은 "A 씨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A 씨의

개인정보 취득과 사용에 동의한 사실도 없다. 지난 2일 A 씨로부터 (3명 개개인)의 실명으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 입당, 당비까지 낸 권리당원 명단이 '통'으로 유출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가 된 당원 명부에는 이름과 주민번호·전화번호·주소·입당 출당 내역·e-메일 등의 개인정보가 총망라돼 있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을 주장한 이들이 모두 지난해 하반기 입당한 신규 권리당원들이라는데 주목, A 씨 측이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발신자 신상·수신자 규모·발송 비용과 제작 비용 규모와 출처 등을 모두 파악할 예정인 것

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해당 문자메시지에서 신년인사와 더불어 새 정부 들어 자신이 일궈온 업무적 성과를 설명하며 신년 영상메시지도 첨부했다.

이 과정에서 글머리에 수신자 개개인의 실명을 적시했는데, A 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이들이 적지 않고 경쟁후보자의 처 조카나 경쟁 후보자 최측근의 대학생 자녀 등 신규 권리당원 상당수가 동시다발로 메시지를 받으면서 명단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민주당 중앙당이 추미애 당대표의 지시로 긴급 현황 조사를 실시했으며, 광주시당은 법률가와 주요 당직자를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광주 지역 민주당 권리당원은 5만~6만 명으로 추산된다.

신봉우 기자

무안서 차량 경계석 들이받아...3명 사상

16일 오후 11시 52분께 전남 무안군 삼향읍 편도 4차선 도로에서 김모(28)씨가 몰던 K3 차량이 연석을 충돌한 뒤 전복됐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운전자 김씨가 숨졌으며, 동승자 정모(20·여)씨와 김모(20·여)씨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경찰은 김씨의 차량이 마을을 지나던 교차로에서 미끄러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동포 흥기로 찢른 태국인 여성 검거

부산 기장경찰서는 17일 원룸에서 함께 지내는 동포를 흥기로 찢른 태국인 A(44·여)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 45분께 부산 기장군의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동포 B(30·여)씨의 복부를 흥기로 한 차례 찢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에 대해 험담한데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이날 음식 조리 중 집 안에 냄새가 나게 했으며 시비를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범행 이후 도주한 A씨를 추적하며 출국금지 시켰고,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께 김해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인터넷으로 골프용품 판매 사기 30대 구속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7일 인터넷을 통해 골프용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챙긴 A(3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인터넷 사이트 5곳에서 골프용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53명으로부터 152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과 지인의 계좌 7개, 전화번호 16개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게 해 다른 피해자의 돈을 가로챈 3차 사기 수법도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 탄 차량서 분신 추정 불...70대 중태

16일 오후 7시 40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 맞은편 거리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운전석에 사람이 탄 상태로 불이 났다.

이를 발견한 행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던 A(76)씨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 온 몸에 붙어 있던 불을 끄고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온 몸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의 차량 뒷자석에서는 휘발성 물질이 담았던 통과 라이터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지병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설 토토로 회원들 유인 소개비 챙긴 부부

인터넷 포털에서 불법 사설 토토 사이트를 홍보하는 카페를 운영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하고 부인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불법 토토 사이트로 유인하며 소개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유인한 고객이 사이트에서 잃은 돈의 30%를 불법 토토 사이트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년간 약4300여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걸론 평범한 스포츠 경기 분석 카페를 운영하는 것으로 위장해 범행을 감췌었다.

KFS 한국농어촌공사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연금사업

농지규모화사업

Fb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이농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 농지임대수탁사업**
자경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문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대학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